

---

# 노인특성과 여행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Demographic and Trip-related Behavior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Travel Population

---

지봉구, 이계희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Bong-Gu Jee(tourxpert@khu.ac.kr), Gye-Hee Lee(ghlee@khu.ac.kr)

---

### 요약

여행시장에 있어 인구의 고령화는 새로운 표적시장의 증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국가정책 측면에서는 복지관광수요의 증가라는 의미를 갖는다. 날로 첨예화되는 시장경쟁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여행업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창출 대안으로서 노인관광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관광 측면에서 노인관광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노인 여가활동 중 관광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타 여가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착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여행활동 특성이 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생활수준, 건강상태, 용돈수준이 높은 노인 집단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행형태에 따른 생활만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실무적 시사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관광행동 | 생활만족 | 노인 | 생활특성 |

### Abstract

Rapidly increasing aged population provides an ample market opportunity for the Korean travel industry, and from national policy perspective, it poses an fortified demands for welfare tourism. In the fierce competition, this emerging market can serve as a lucrative target market for tourism & travel industry in Korea. In addition, using tourism for the aged as a social welfare policy can be a potentially viable means to mitigate the increase social pressure due to rapid population aging. This rationa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ourism contributes to higher level of perceived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other leisure activities among the aged. In this study, using empirical data collected from 185 respondents aged 55 and above in Cheong Ju area,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and trip-related behaviors on life satisfaction was tes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economic and health conditions affect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while trip-related behaviors did not exert any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light of th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marketing and policy-making were presented in detail.

■ keyword : | The aged | Trip-related Behaviors | Life Satisfaction |

---

\* "본 연구는 2010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KHU-20100139)

접수번호 : #091013-013

심사완료일 : 2009년 11월 18일

접수일자 : 2009년 10월 13일

교신저자 : 이계희, e-mail : ghlee@khu.ac.kr

## I. 서론

### 1. 문제제기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으로 노령화 추세는 지속되어왔다. 평균수명 추이를 보면 1971년 62.3세에서 2006년에는 78.6세로 높아졌고, 2030년에 83.1세 그리고 2050년에는 86세로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203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예상치를 초과한 뒤 2050년에는 세계에서 노인비율이 가장 높아 국민 3명중 1명이 노인일 것으로 예상된다[1].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는 노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는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 가족관계 영역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2].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 후진국은 빈곤문제와 건강문제가 급선무이며, 선진국에서는 빈곤문제와 건강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 그리고 고독감 등의 사회 심리적 문제들을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노인들의 하루 일과 자체가 여가시간이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인식은 유익한 시간보다는 무료한 시간이 된다. 그러므로 여행을 통해 노인이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인의 관광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관광행동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준거로 삼고, 둘째, 노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국내여행 행태, 그리고 관광지 내에서의 관광행동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집단 간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첫째, 기존의 문헌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관광행동,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론을 문헌적 연구방법(docuemantary method)으로서 체계화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실제 노인관광복지에 대한 노인들의 관광에 대한 경험과 관광을 통한 생활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empirical study)을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SPSS를 활용하며, 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분석을 실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하여 간다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태로서 노년기 적응 및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로서 간주되어 왔다.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 자신의 특성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가족형태, 결혼상태, 직업, 건강 등에 영향을 받는다[3].

첫째, 성별은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되어 왔으나, 연구자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연령에 따른 차이는 건강상태나 사회적 관계 등에서 개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은퇴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셋째,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타나 일반적으로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게 됨으로써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넷째,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다섯째, 가족과의 원만정도, 건강상태, 그리고 용돈 상태 등은 생활만족도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노인은 평생동안 자신이 부양하던 위치에서 역으로 부양받는 위치로 지위가 변화됨으로써 사기가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4].

### 2. 노인의 관광행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노년기는 은퇴 및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인하여 역할상실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다[5]. 따라서, 노인들에게 어떤 활동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시설보호를 이용하는 보호노인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6-8].

최근 들어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대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5][9-11][12-14], 노인의 관광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 3. 노인 관광행동의 특성

과거엔 여가활동이 단지 휴양과 피로회복의 시간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들어 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 등 여가주체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 들여 진다[15].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노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여가활동을 통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 자세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5], 여가활동 중의 하나인 관광행동이 생활만족도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적절한 관광행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노인의 관광행동의 특성과 관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인대학 참가자들의 관광행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기본적인 모형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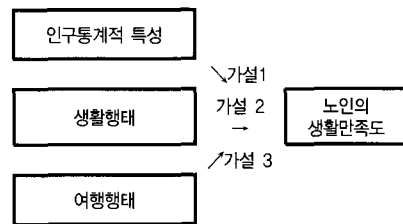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 2) 가설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노인들의 관광행동에 대한 특성을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 노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노인의 생활행태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노인의 관광행동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방법

첫째, 노인층의 응답집단 선정을 위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집단을 구성하였다. 청원군 지역은 노인대학에 참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주시 지역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조사의 방법이다. 조사방법은 노인대학과 노인복지시설에 참석한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목적과 상세한 설문지 구성에 대해 전체적으

로 설명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를 노인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에 의해 이루어졌다. 설문내용중 이해가 안가고, 애매한 내용은 조사원들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고, 작성된 해당설문지는 직접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셋째, 조사기간은 2007년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달간 실시되었다.

넷째, 표본의 크기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에 거주하면서 노인대학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186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응답이 부실한 1부를 제외한 185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효표본 185명을 대상으로 일반항목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첫째, 표본응답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총 185명 중 남자가 53명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가 132명으로 71.4%를 차지해 여자가 2배 이상 많게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	53	28.6	생활수준	매우 잘 산다	2	1.1	
	여	132	71.4		잘 산다	25	13.5	
	Total	185	100.0		보통이다	139	75.1	
연령	60세 이하	32	17.3		환달단	못 사는 편이다	16	8.6
	61세-65세 이하	24	13.0			매우 못 산다	3	1.6
	66세-70세 이하	57	30.8			10만원 미만	39	21.1
	71세-75세 이하	47	25.4			10-20만원 미만	44	23.8
	76세 이상	25	13.5			20-30만원 미만	59	31.9
	합계	185	100.0			30-40만원 미만	24	13.0
						40만원 이상	19	10.3
학력	무학	25	13.5		용돈상태	여유있다	13	7.0
	서당	8	4.3			약간 여유있다	16	8.6
	국민학교	79	42.7			보통이다	99	53.5
	중학교	28	15.1	조금 부족하다		49	26.5	
	고등학교	30	16.2	아주 부족하다		8	4.3	
배우자유무	전문대학 이상	14	7.6	용돈사용처	취미생활	38	20.5	
	유	122	65.9		손주 용돈	39	21.1	
자녀수	무	63	34.1		약 구입 비용	49	26.5	
	자녀 없음	4	3.4		여가시간 소비	39	21.1	
	1명	0	0		기타	17	9.2	
	2명	4	3.4		생활비 수입원	일해서	53	23.6
	3명	19	16.1			퇴직금 활용	17	7.6
	4명	25	21.2	재산소득		13	5.8	
	5명 이상	56	47.4	자녀		82	36.4	
무응답	14	11.9	저축	46		20.4		
동거가족	배우자	111	60.0	연금이나 보조금		12	5.3	
	배우자 + 자녀	11	5.9	기타		2	.9	
	결혼한 자녀	27	14.6	가장 큰 문제		건강상의 어려움	73	39.5
	혼자	27	14.6			경제적 어려움	54	29.2
	기타	9	4.9			고독과 외로움	16	8.6
건강상태	좋지 않다	30	21.1			죽음에 대한 두려움	11	5.9
	보통	116	62.7			자녀와의 불화	2	1.1
	좋다	39	16.2					

둘째, 연령대는 '66-70세'가 57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71-75세'가 47명(25.4%), '60세 이하'가 32명(17.3%), '76세 이상'이 25명(13.5%), '61세-65세 이하' 24명(13.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향후에는 노인집단을 연소노인, 중간노인, 고령노인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연소노인(Young-Old)은 55세 이상 64세의 노인을 말하며, 중간노인(Middle Old)은 65세에서부터 75세까지의 노인을 말하며, 고령노인(Old-Old)은 7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셋째, 학력수준은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이 79명(42.7%), 고등학교 졸업이 30명(16.2%), 무학이 25명(13.5%), 중학교 졸업이 28명(15.1%), 서당교육이 8명(4.3%) 등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122명(65.9%), 없는 노인이 63명(34.1%)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동거가족의 형태를 보면, 배우자와 사는 경우가 111명(60.0%), 결혼한 자녀와 사는 경우가 27명(14.6%), 혼자 사는 경우가 27명(14.6%), 배우자 및 결혼한 자녀와 사는 경우가 11명(5.9%)를 차지하였다.

## 2. 가설의 검증

### 1) 가설1 :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생활만족도는 3.52의 수치로 중간 이상의 정도를 보여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안미영(2006)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의 생활만족도(3.270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17].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중에서도 관광행동에 따른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각 변수들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연령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사후검증(Scheffe) 결과 중간노인(65세-75세 미만) 계층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기 이후 구매력이 있는 노인들이 관광활동이 확대되는 반면에, 75세 이상 노인은 신체적 문제 때문에 관광활동이 곤란한 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소노인과 중간노인계층을 대상으로 관광활

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고령노인에 대해서는 활동성이 적은 여가활동과 함께 신체적 제약이 따르는 노인들에게는 복지적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인구통계적 특성 중에서 다른 항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값, F비
성별	남	51	3.4523	.50001	-1.130
	여	131	3.5481	.54715	
연령수준	연소노인	55	3.4473AB	.42987	5.48*
	중간노인	102	3.6235A	.49597	
	고령노인	25	3.2667B	.64404	
학력수준	무학	25	3.3573	.53710	1.672
	서당	8	3.4833	.32805	
	초등학교	78	3.5991	.58893	
	중학교	27	3.4864	.57759	
	고등학교	29	3.3793	.34231	
	전문대학 이상	14	3.7238	.46177	
배우자유무	유	119	3.5664	.50578	1.572
	무	63	3.4360	.58018	
계		182	3.5212	.53474	

주 : \* p < 0.05

### 2) 가설2 : 생활관련 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노인의 생활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와 같다.

각 변수들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건강상태, 생활수준, 용돈수준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한달 용돈수준이 높은 노인 집단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또는 생활수준이 낮다고 해서 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노인들에게는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대정책

을 펼쳐야 하며, 그럴만한 여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는 여가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표 3. 생활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F비	
건강상태	양호	39	3.7880A	.50120	8.061*
	보통	15	3.4841B	.52375	
	불량	28	3.3024B	.49673	
생활수준	매우 부유	2	4.2000A	.09428	3.662*
	부유	23	3.6435AB	.49221	
	보통	38	3.5401AB	.53390	
한달 운동수준	가난	16	3.2125BC	.44835	3.227*
	매우 가난	3	2.9111C	.44389	
	10만원 미만	38	3.4211B	.63607	
	20만원 미만	43	3.3860B	.62717	
	30만원 미만	58	3.5874B	.38621	
	40만원 미만	24	3.5000B	.42574	
40만원 이상	19	3.8526A	.47588		

주 : \* : p <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 : C(B<A

3) 가설3 : 여행 행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노인의 여행 행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변수들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해외여행 유무, 국내여행의 숙박 유무, 국내여행의 정보원천, 여행경비 조달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각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노인의 여행 행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행 정보원천에 대한 응답에서는 친척과 친구들이 노인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행태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에 본 연구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여행행태에 따라 차이는 없지만 여행을 통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들의 관광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여행행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2개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값, F비
해외여행 유무	유	136	3.5529	.51257	-1.284
	무	46	3.4275	.59156	
숙박여행 유무	당일여행	82	3.4951	.60069	-.596
	숙박여행	100	3.5427	.47596	
여행정보원천	자신의 지식/경험	22	3.4667	.63812	-.596
	여행사 및 호텔	18	3.6000	.60499	
	친구/친척/아웃	112	3.5315	.52937	
	대중매체	30	3.4756	.44039	
여행경비 조달	개인 저축조달	69	3.4802	.61936	.912
	자녀	52	3.4833	.42016	
	연금	9	3.4519	.45677	
	계모임	50	3.6267	.53554	

\* p < .05 / A > B는 다중비교결과(Scheffe)임

V. 결론

인구의 고령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관광부문에 있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여행시장에 있어 새로운 표적시장의 등장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관광정책적인 의미에서 복지관광수요의 증가라는 의미를 가진다.

우선, 여행시장에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여행사의 입장에서 새로운 수익창출모델로서 노인관광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들 중에서 65세와 75세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노인 계층은 신체적 그리고, 시간적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까지 갖춘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은 집단별로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노인 계층은 패키지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소노인계층은 노인으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같은 노인집단이라도 연령층을 고려한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상품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광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노인의 여가활동 중 관광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공원에서 소일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원거리로 여행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노인인구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종교기관들이 연계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 더불어 관광프로그램의 활용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이 해외여행 유무나 숙박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국내여행을 통해서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올바른 여가활동 수단으로서 관광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전문 인력 양성이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의 응답 능력 부족으로 인해 조사자를 통해 측정하였으므로 노인이 지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여행행동과 생활특성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광이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1] 이영호, *고령사회 한국의 농어촌: 노인보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영호의원실, 2005.
- [2] 조옥주, *노인의 관광행동과 생활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 남기민,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학교출판부, 1998.
- [4] 김행자, *서울시내 일부노인들의 소외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고령층의 정보문화 활성화 방안 -사회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2009.
- [6] 이숙희,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건강특성과 케어 및 재활간호 만족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7] 안영철, *노인 요양시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숭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8] 심영진, *노인생활시설의 시설환경과 일상생활서비스가 시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9] 이혁, *노인의 사회체육 참여정도에 따른 생활만족관계모형 개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0] 박귀영,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실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영대 신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1] 최인근, *노인의 여가 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12] 고영준,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동기와 라이프스타일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참여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박자영, *노인 도예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노인의 우울정서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전상진, *노인의 당구활동 참여가 사회적지지,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15] 문선희, *인바운드 관광객의 국적별 관광동기와 관광행동에 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6] 고정자, *노인복지학개론*, 형설출판사, 2006.
- [17] 안미영, *노인의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저자 소개

지 봉 구(Bong-Gu Jee)

종신회원



- 1994년 2월 :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사)
- 1997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2년 8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연구교수  
<관심분야> : 관광정보, TGIS, CRS/GDS, 문화관광 콘텐츠

이 계 희(Gye-Hee Lee)

정회원



- 1992년 5월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호텔경영학석사)
- 2001년 12월 : Perdue University (관광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관심분야> : 관광지마케팅, 소비자 행동론